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나를 통하여

온 맘 다해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8:9-25

“십자가를 바라봄”

“큰 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 212)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일 현장예배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은 참석하기를 도전합니다.
3.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4. 11월 1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 목녀들은 기억하시고 Zoom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당회원들은 교회 일정표에 있는 당회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금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은 전액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7.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 12월 첫주일부터 1부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115,225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부터 일조시간 변경(Daylight Saving Time Ends)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미 시간 변경을 다 하셨겠지만, 이른바 썸머타임이 끝나면 초겨울에 접어든 느낌이 듭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새벽기도회를 나서며 자동차 전면창이 얼어붙어서 출발을 지체할 정도였습니다. 추워지니 독감 및 감기도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겹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다 건강하신지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전화심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재택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며 사무실이 없어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재택 근무하는 느낌은 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밖에서 만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하고, 중요한 회의조차도 밖에서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 하다보니 재택근무하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현재 저희집 거실은 제가 근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책, 제가 사용하는 자료들로 어지럽습니다. 가족공유공간을 혼자 독차지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할 정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다음날 새벽기도회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밤 1시가 지난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예배실문과 관련해서 미국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비교하며 살폈고, 예배실 의자 주문을 위해 미국과 한국 업체를 비교하며 한국과 연락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오늘은 칼럼이 아니라 제 신변잡기를 말하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